



2

국토교통부 장관, 일산신도시 현장 점검

고양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발맞춰 고양 주민 맞춤형 현안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함께 고양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7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 장관과 고양시 관계자들은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 강촌, 백마, 후곡, 문촌, 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살폈다. 견다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불편 사항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원 장관의 고양시 방문이 노후도시 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고양시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탄현, 장항, 지축 등 LH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3

도정기본계획 재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

고양시는 지난 3월 일산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본격적인 재정비를 위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는 우선 기존 '2030 도정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일산신도시 재정비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기타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을 검토 후 '2035 도정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사전컨설팅 용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사업 추진 예정단지를 선정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추후 이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원당2구역 조감도

4

원당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인가·원도심 재개발 '가속'

지난 3월 28일 원당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며 원당2구역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원당2구역 재개발 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596번지 일원 65,051㎡ 부지에 지하3층~지상35층, 1,326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과 미래공공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 건축·교통·경관통합심의, 사업 인정 공람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착공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원당1구역과 4구역은 사업진행이 한발씩 앞서가고 있다. 원당1구역은 지난해 90% 이상 이주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원당4구역은 현재 약 40% 정도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분양을 완료해 약 1,200가구가 내년 하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원당4구역 내외장재가 탈락된 건축물에 긴급 안전조치를 행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안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5

능곡1구역 준공으로 재개발 탄력... 기반시설 확충해 '자족'기능 확대 총력

능곡1구역은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중 처음으로 지난 1월 17일 준공을 마쳤다. 40,519㎡ 면적에 8개동, 지상34층, 643세대로 구성된 능곡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 후 이주를 시작해 현재 501세대가 입주 완료했다. 고양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일산방향 호수로로 연결되는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확장 이후 호수로 교통이 대폭 개선되고 대곡역세권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능곡 2, 5구역은 2021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능곡 5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접수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처리되면 주민이주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능곡3구역은 준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능곡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능곡역 주변 상업기능 활성화와 지도공원 중심의 녹지축 형성이 예상된다”며, “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족기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혁신을 통해 시민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직주근접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능곡1구역 아파트 전경